

12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자동차·주택 악재로 1.18% 하락 [다우: 8,419.49pt (-1.18%)]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약세로 마감했음. 또한 뉴욕증시에 쏟아진 경기지표들은 1년째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의 어 려운 경제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음.
미시간 소비지수는 예 상치 상회 불구 부진한 주택지표에 가려	이날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는 이전 예비치 (59.1)보다 소폭 상향된 60.1로 나타났다. 휘발유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그러나 이같은 호재성 재료는 부진한 주택거래 실적 에 완전히 가려졌음. 더욱이 11월 주택거래 지표들은 집값이 폭락하는 와중에 거래가 오히려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국면의 전형적인 특 징들을 드러냈음.
GM·포드 다시 폭락..구 제금융에도 미 자동차 생존 의구심 증폭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가 전날 GM과 포 드의 신용등급을 각각 하향조정한 점이 악재로 작용하며 자동차주 급 락. 특히 GM의 경우엔 지난 주 부시 행정부가 94억달러의 긴급자금 지 원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S&P가 무담보 회사채의 등급을 투자적격 단계보다 무려 11단계나 낮은 'C' 등급으로 강등시켰음.
CIT그룹 규제금융으로 강제..텍스트론은 실적 부진으로 급락	항공우주 금융 등의 복합기업체인 텍스트론(Textron)은 금융사업부문 부진에 따른 분기손실 예고로 20% 이상 급락세를 보였음. 이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2,2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지만, 급락세를 돌리지는 못했음. 반면 금융업체로 현금부족에 시달리던 CIT그룹(CIT Group)은 2% 가까이 올랐음. 미 재무부의 금융권 구제기금의 부실자산구제계획 (TARP)으로부터 23억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음.
유가 2% 하락 [WTI: \$39.15 (-\$0.93)]	국제 유가가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하 락세를 지속했음. 내일(24일)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원 유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하락을 부추겼음. 에너지 정 보 제공업체 플랫츠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150만배럴 늘었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도요타, 美진출 24년만 에 첫 감원 예고	북미 자동차시장이 최악의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도요타가 북 미 진출 24년만에 처음으로 감원에 나설 전망이라고 23일(현지시간) 블 룸버그 통신이 보도. 도요타의 북미 생산 부문의 짐 와이즈만 부사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감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며 "상황이 그 정도로까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코 가능 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힘.

제목	주요 내용
GM 구제자금 여파.. 中공장 생산능력 수년간 동결	구조개편에 놓여있는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공장의 생산능력을 향후 수년간 동결할 전망. 아시아공장들의 일부 프로젝트도 벌써부터 연기되는 등 GM 본사의 구제자금 여파가 해외공장에게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EU, 英.伊.스페인 금융회사 구제 승인	오는 2010년 말까지 정부보조금 지급 규제를 완화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라트비아 정부의 금융회사 구제안을 승인. 집행위는 이날 이들 국가 정부의 금융회사 구제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금융회사와 시장의 경쟁구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힘.
英 3.4분기 경제성장 마이너스 0.6%	영국 경제가 3.4분기(7~9월)에 0.6%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영국 국가통계청은 영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급격히 위축됐으며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0월에 발표한 추정치인 0.5%보다 더 낮은 0.6% 감소했다고 밝힘.
중국, 외환보유 5년만에 감소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듦. 차이치우생 중국 외환관리국외채처장은 20일 열린 중국수출입기업 연례회의에서 “외환보유고가 월별 통계로 최고 1조9천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지금은 이보다 밑으로 떨어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23일 전함.
中 무역결제 규제 완화	중국이 수출업체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결제 규제를 완화할 방침.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수출업체들이 외화로 지급받는 선지급금을 종전 10%에서 25%로 확대, 수입업체들의 기연가능한 외화 지급금을 수입물품 가치의 10%에서 25%로 확대했다고 밝힘.
日정부 88.5조엔 규모 거대 예산 승인예정	일본 정부가 24일 88조5,400억엔에 달하는 2009년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규모며, 일반 지출의 경우 9.4% 증가한 51조7,300억엔까지 늘어날 전망.
"상하이차, 쌍용차노조 구조조정 거부땀 `파산`"	쌍용자동차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음.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정할 경우 그 시기는 내년 1월 초·중순께가 될 것이며 이는 쌍용차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
`살리기`서 `옥석가리기`로 급선회	금융감독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사와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작업에 시동을 걸었음 지금까지는 `기업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은 전 분야로 확대될 수도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